

오빠랑 나랑



글 · 그림 박연옥 / 책고래

뺀질뺀질 얄미운 오빠와 오빠 뒤만 <u>종종</u> 따라다니는 동생

뺀질뺀질 얄미운 오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동생 이야기예요. 특별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평범한 남매 이야기지요.

오빠는 자꾸 말을 시키는 동생이 귀찮기만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싫다고 대답했지요. 참다참다 화가 난 동생이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 입이 오리처럼 쭈욱 튀어나왔어요. 오빠는 킥킥 웃으며 놀려댔지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 몰려와 동생을 놀렸어요. 오빠는 남들이 동생을 비웃자 기분이 이상했어요. 결국 "내 동생한테 그러지 마!" 하고 소리쳤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오빠의 모습이 변했어요. 엉덩이에서 커다란 꼬리가 쑥 나온 거예요. 둘은 무사히 엄마 심부름을 마칠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감추거나 가리지 않고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내요. 때로는 짓궂은 장난으로 친근 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우스운 별명을 지어 부르고, 실수를 하고 부끄러워하는 동생 앞에서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요. 엄마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맞붙어서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속이 상할 거예요. 매번 시비를 가리는 것도, 아이의 마음에 흉이 질까 조곤조곤 달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어른들이 그렇듯, 크고 작은 '충돌'은 아이들 사이를 좀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독후 이해 활동

● 주인공 마음 이해하기 – 심부름을 가는 오빠 마음은, 내 마음은 어떨까요? 서로의 마음이 되어 자세히 적어 보아요.

오빠 마음



내 마음

◎ 바른 말 고운 말 점수는? 화가 나서 한 말이 무시무시한 벌이 되었네요. 나는 고운 말을 쓰고 있는지 평가해 보아요.

	아니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많이 그렇다 5점
욕을 많이 한다				
화가 날 때만 한다				
놀 때 욕을 한다				
바른 말만 쓴다				
합 점				
나를 평가해 보기				

독후 활동 이어가기

② 칭찬스티커 만들기-동생이나 형을 칭찬해 보고 어울리는 칭찬 스티커도 예쁘게 만들어 붙여 주어요. 내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름	칭찬해요
71001		

② 건빵 가족 사진 액자 만들기-건빵에 다양한 표정도 그려보고 가족사진을 넣은 액자 로도 꾸며 보아요.



〈건빵 액자 만들기〉

준비물/ 건빵. 글루건.싸인펜. 하드보드지

- ① 건빵에 사인펜으로 다양한 표정을 그려요
- ② 액자 모양으로 하드보드지를 잘라 액자틀을 만들어요
- ③ 만든 액자틀에 건빵을 둘러 액자를 만들어요
- ④ 액자에가 사진을 붙여 멋지게 장식해요
- ⑤ 남은 건빵은 냠냠 꿀꺽 맛있게 나누어 먹어요